

2023년 제6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진행상황

2023년 제6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 회 2023년3월30일(목)14시
장 소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마곡단지관리팀장

그러면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14분 중에 10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2항에 따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금 *** 위원님께서 그 사전에 위원회가 있으셔서, 중간에 들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신 행정1부시장님을 대신해, 부위원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부 위 원 장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회의를 하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신 행정1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전은 총 5건입니다.

심의는 각 안전별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의를 거쳐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 시 2023년3월30일(목)14시

장 소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또한 안전별 제척 및 기피사항에 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척, 기피 신청서에도 해당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은, 간 사가 건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입니다.

간 사는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1호 안전

*******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

제1호 안전설명

간 사

첫 번째 안전인*****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의 건입니다.

심의 근거는 ‘분양계약 체결 후에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제외나 변경은, 서울특별시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근거에 따라 갖고 컨소시엄 구성 변경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그 표에 보시면, ***** 조정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내용인데요.

그 컨소시엄 구성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부결로 의제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그 밑에 박스 속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승인 기준이 구조조정 등 경영상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정량평가 채실시 결과 기존 점수 이상으로 나와야 만이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전검토 의견인데요.

뒤에 5페이지 ***** 대상 기업 관련 자료와 7페이지에 그 참고2로 기업 평가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호 안전심의

부 위 원 장

위원님들 안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3페이지 보시면, *****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밑에 표를 보시면 지분 변경에 보면, 그 변경 후에

간 사

이게,

부 위 원 장

설명을 보면요, 밑에 표 보면.

간 사

부 위 원 장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겁니까?

간 사

그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여기 8쪽에 보면, *****

근데 변경사업계획으로 갈 경우, *****

근데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시 뭐 아마 산정을 하셨을 텐데, 정량적 평

가기준에 보면 연구개발 능력이 전체 400점에서 100점이고, 연구개발 투자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분을 반영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있잖아요.

****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정확하게 산정이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이거는 직접 한 게 관리단에서 했죠?

예, 관리단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예, 그 평점을 컨소시엄 구성사의 전체에 대한 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

*****, 그래서 전체적인 합계가 통합 합계가 이렇게 상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컨소시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깐요, *****

*****위원

글쎄요, 근데 우리 4쪽에 보면, 기업평가기준에서 컨소시엄 구성 시 각각 산출한 평점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총점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마곡기업관리팀*****

예 ,

***** 여기서는 오히려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액수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 위 원 장

그 제 아까 질문의 그 연속인데 제가 아직 이해가 덜 돼가지고, *****
매각이 됐는데, 지금 보면 밑에 그 지분 변경 안에 표에 보면 뭐 *****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

간 사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로는 *****

부 위 원 장

예.

간 사

***** 알고 있습니다.

그 맞나요? 그게.

부 위 원 장

아, 여기는,

간 사

예.

부 위 원 장

그 작년*****되었다고 이렇게,

간 사

아, 여기 표현이 아파,

부 위 원 장

되어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간 사

예.

부 위 원 장
혼돈이 생겨가지고요.

간 사
아, 여기 *****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넘어가지 않았냐?

간 사
못 하도록요.
예, *****

간 사
예.

부 위 원 장
예, 아직까지 *****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그럼 계약을 했는데 *****

간 사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지분만큼,

부 위 원 장
예.

간 사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 위 원 장

예, 하여튼 이 약간 제가 사전에 읽어보니까,

아, 예.

부 위 원 장
이게 혼돈이 생겨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간 사
예.

부 위 원 장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그 관리...평가한 것처럼, ‘물론 그 컨소시엄의 변경이 일어났으나

부 위 원 장
예.

*****.

부 위 원 장
예, 그것은 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건에 약간 오해적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이 심의안건 5건 다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내도록 하죠.
다음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 준공기한 연장 건에 대해서, 간 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 **준공기한 연장**

제2호 안건설명

간 사

예, 두 번째 안건입니다.

***** 준공기한 연장의 건입니다.

이 심의 근거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에 따라서 준공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왔는 데요.

***** 연장 승인을 요청한 건이고요.

그 내용은, ***** 지연이 되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개요 현황을 보면, *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그 잔여공사 일정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전에 현재 진행사항이고요.

그간에 추진현황을 보면,

*****연장 신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전검토 의견인데요.

현재 그 건축물 내

이상입니다.

부 위 원 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질문 없으시면,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 준공기한 연장 건입니다.

간 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 준공기한 연장

제3호 안건설명

간 사

예, 세 번째 안건입니다.

***** 준공기한 연장의 건입니다.

심의 근거는,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안건하고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청 사유는, *****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잔여공사 일정이 이렇게 보시면,

**

*****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인데요.

***** 연장 신청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그 16페이지를 보시면, 붙임1에 시공사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그 잔여공정표 붙임1, 2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 위 원 장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네 번째 안건 *****에 대해서, 간 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제4호 안건설명

간 사

네 번째 안건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의 건입니다.

심의 근거는, 그 분양 체결 후에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제외나 변경은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주계약 체결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에 근거해서

*****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런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두 번째는 건축물 준공기한 연장 건인데, 이거는 지금 요청안은, ***** 연장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그 사유를 이렇게 보면, 코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그간에 그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하고 준공기한 연장을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하실 그럴 대상이고요.

다음 21쪽입니다.

준공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연장 사례가 그 참고로 22쪽하고 23쪽에 있는데,

그 뒤 내용을 참고하셔

**

그 25쪽부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 사

예.

제4호 안전심의

부 위 원 장

그러면 이번 안전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컨소시엄 구성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준공기한 연장 요청 관련입니다.

준공기한 연장 요청 관련해서는

부 위 원 장

예.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 위 원 장

*****?

간 사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뭐 이 부분을,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간 사

마곡단지관리팀장

간 사

마곡단지관리팀장

예, *****

간 사

예, *****

부 위 원 장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받*****

부 위 원 장

뭐 그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간 사

예, 그런.

부 위 원 장

필요하겠죠.

간 사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요.

부 위 원 장

간 사

예.

부 위 원 장

**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예.

전략산업기반과장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위 원 장

예.

간 사

예.

부 위 원 장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

이 건은 지금 컨소시엄 구성 변경 요청인데, 당초에는 이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이 *****

간 사

예.

**** 위원

그렇죠?

그러면 컨소시엄의 주관사도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관사가 바뀌면, 어떤 뭐 평가점수나 이런 거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이 최대 그 대표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가지고요, 컨소시엄에서 대표기업을 그냥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분이 50%가 됐다고 해서, 바뀌어가지고 다시 평가하거나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현재대로 그냥***** 대표기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상으로.

**** 위원

그니까 지분하고 상관없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들끼리 ‘대표기업을 누구로 하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예.

*****위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예, 공모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저 준공기한 연장 관련해서요, 그 선례로 설명해 주신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위원

예.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위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예, 맞습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일전에 우리가 *****기업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심의 때 걸려내지 못했던 사례가 지난번 심의 때 있었거든요.

그니까 과도한 부채라든지 과도한 자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그 심의과정에서 걸려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그 이런 또 심의안건이 올라왔을 때, 구조조정 관련된 또는 경영 악화 기업들이 ‘그전에 심의할 때 그 제출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가 사전적으로 검토가 됐었나요? 그 이후에 그*****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 관련해서.

이 경영 악화가 언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처음에 컨소시엄 참여서부터의 문제인지, 정말 최근에 이런 경영 악화나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거진 문제인지, 이런 게 점검된 건가요?

간 사

관리단에서.

*****위원

예.
 마곡기업관리팀 *****
 예, *****
 저 5페이지~6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출한 자료로 검토를 했는데,
 ***** 위원
 예.
 마곡기업관리팀*****
 재무상태표도 보시면, 자본 부채 그 5개년 간 다 점검을 했고요.

 그걸 판단을 분석을 해서, ‘*****’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앞으로의 경영상 어려움은 불가피 할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 임의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아직 경영 악화라든지 파산
 등에 대한 뭐 회계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된 건 아니잖아요.
 마곡기업관리팀 *****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산자부에,
 ***** 위원
 예.
 마곡기업관리팀 *****
 질의를 했었고,
 ***** 위원
 예.
 마곡기업관리팀*****
 산자부에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봤을 때,
 *****위원
 예.
 마곡기업관리팀 *****

이런 조건에 하면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
 어서, 그거를 근거로 판단해서 구조조정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
 그럼 그런 그 관련 기관들의 그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기준에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어야 되
 고, 그 이게 앞으로도 구조조정 관련된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당초 계속 문제점들은 여기서 뭐 정량평가에 대한 내용도 잘 지
 적했지만, 그 재평가 점수가 이전에 최초 입찰 참여했을 때의 기준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의 심의로 이뤄진 거기 때문
 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책심의 할 때는 사전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터링되는 상태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
 금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를,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
 량적으로 판단했던 거 외에, 그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자료도 같이 여기
 다 포함을 시켜줘야,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예.
 *****위원
 그 판단에 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고 들어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설명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예.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위 원 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간 사

에.

부 위 원 장

다음에는 *****과 관련해서, 간 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5호 안전

준공기한 연장심의 소위원회 구성

제5호 안전설명

간 사

다섯 번째 안전입니다.

준공기한 연장심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그 심의 근거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뒤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그 영향이나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해갔고, 사실 준공기한 연장의 요청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하나는 도시형공장 등록 소위원회가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금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실 해 주실 사항이, 준공기한 연장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인력은 저희들이 안을 낸 거는 5명 이내이기 때문에 4~5명으로 하고, 운영일자는 수시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절차를 보게 되면, 기업이 요청을 하고 관리단은 거기에 따른 관리검토를 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정책위원회에 나중에 추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걸로 하고, 주요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 안전 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뒤에 그 31쪽을 보면 참고사항인데요.

도시형공장 등록 소위원회하고,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맨 뒤쪽에 32페이지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위원님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준공기한 연장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제5호 안전심의

부 위 원 장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의결사항으로는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소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먼저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는 데 저는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일단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마 그 건축자재 문제,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인력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실제로 건축하고 준공을 기한에 맞추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게 어떨

까.’라는 생각이구요.

뭐 말씀드린 김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단순 준공기한 연장심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단순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준공심의와 관련해서 준공연장 심의와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이거는 본위원회에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위임하는, 그니까 위임이라기보다는 결정하는 경우, ‘그 경우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

이게 심의를 한다는 거는, 수권소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귀결사항이에요.

이 단순하게 준공기한 연장이라는 건, 앞으로 이런 건수가 많이 예상되니까 소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절차들을 사전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경중을 따져볼 필요는 있고,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되면, 심의에 저희가 참고해서 전체 의견을 묻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서울시의 도시계획처럼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처럼 수권소위를 두게 될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이런 것이 침해되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 전체가 인원이 한 10여 명 남짓한데, 10여 명 남짓해서 다섯 명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도, 사실 나중에 그 부적절한 사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역할로서, 전체 많은 앞으로의 예측되는 사례들을 사전적인 검토를 하고, 또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장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이전에 소위원회에 2건을 상정해서 의결했을 때도, 기업의 애로사항 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서 폐이퍼로 알 수 없으니, 현장의 기업의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해관계 단체들을 만나봐서, 실질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한번 경청하자.’ 이런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준공기한 연장과 관련된 소위원회도, 수권소위원회가 아니

라, 그 이전의 소위원회와 같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 위원 장

균형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수권소위원회가 아니라,

***** 위원

그냥 일반 소위원회처럼 같이 가야 된다.

부 위원 장

예.

그니까 기존에 있던 소위원회가, 도시형공장 등록 소위원회는 수권소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하고 보고하는 절차고,

***** 위원

예.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는,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정책심의에서 하는 형태로, 약간 두 개가 틀린데, 후자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기 과장님.

부 위원 장

지금 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책위원회 본회의에 그냥 보고하는 걸로 그런.

원래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부 위원 장

예.

도시형공장 등록 소위원회처럼,

부 위원 장

예.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위원회 내에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딱 의견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위원

제가 한번 죄송한데 더 말씀드리면,*****

*

근데 우리가 준공기한은, 앞으로 뭐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뭐 건설자제 뭐 폭등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사유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마곡이 우리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준공기한들을 명시했던 것들은, 앞으로 마곡관리를, ‘마곡산단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의 목표점과 목표시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경정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느슨하거나 유연한 관계로 계속 지속되는 거보다는 정책에서 어느 정도 경직된 기관들을 계속 강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자발적인, 어떤 분발적인 효과들을 내는 그런 유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뭐 예를 들면 도시형공장소 소위원회 등록은 ‘이걸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 하나, 안 하나.’ 이 문제는, 마곡의 준공과 마곡의 산단의 관리와는 별개의 문제들이고, 애로사항의 문제는 ‘기업들이 앞으로 산단관리법에 의해서 뭐 5년 뒤에 이것을 임대할 수 있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수권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준공과 관련된 거, 거기서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경중을 달려서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은 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권소위에서 전체적인 안건을 저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 정도 건은 그 위원들의 그 재량권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명시적인 거기에다 부기를 달면 되잖아요.

부기를 달려서 올리면, 그거는 그냥 그 서류 검토상으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나머지 주요한 사안들은 안건을 통해서 심의하는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안건을 올려줘야죠, 두 가지.

그래서 어떤 거는 ‘수권소위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라는 보고로 끝내고, 어떤 것들은 ‘이거는 중대하니까 우리가 의결을 같이 하는 뭐 절차대로 하자.’ 이리는 거는 난센스인 것 같아요, 저는.

부 위원 장

의견이,

**** 위원

준공심의 같은 거를 서면심의로 해서,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준공절차를 심의하는 것은 의미가, 아까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이게 이런 심의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을 자기의 어떤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애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의안건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는 게, 그 마곡산단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했을 때, 그니까 소위원회 구성하는 취지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예.

**** 위원

그니까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해서 운영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 그런 뭐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심의로 뭐 이렇게 수시로 서면심의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사실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안건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정

책위원회를 소집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한 건데요.

아마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만약에 경미한 부분은 소위원회보다는 서면심사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면심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5호 안건결론

부 위 원 장

그 지금까지 그 논의된 내용들 종합하면,

***** 뭐 그렇게 하면 그 여러분들 의견들이 종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

예.

부 위 원 장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총 결론

부 위 원 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 봉 3타!)

이상으로, 제6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심의의결서에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사 봉 3타!)

수고 많았습니다.

(일동 박수!)